

“특별연장근로, 비정규직 해고수단으로 악용” 지엠 자본, 부품물류 거짓 효율화로 비용·시간 허공에 날려

지엠 자본이 주 최대노동시간 52시간 제도와 특별연장근로를 비정규직 해고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3월 창원부품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세종물류센터로 통합했다. 한국지엠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전원을 해고했고, 노동자들이 우려한 물류대란을 무시했다. 한국지엠은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세종물류센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해고를 외면한 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한국지엠 대리점, 부품사, 직영·협력 정비공장들은 부품을 제때 받지 못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지엠은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9월 6일 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특별연장근로 악용, 한국지엠·고용노동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한국지엠 특별연장근로 허용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지엠의 창원부품물류센터 폐쇄는 글로벌지엠으로 수익을 빼돌리는 꼼수고, 먹튀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다”라며 “노동부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종물류에 대한 특별감독을 즉각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한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고, 다치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지만 특별연장근로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한국지엠은 한국정부를 겁박해 자신의 이익을 챙겨왔다”라며 “노동부가 한국지엠, 하청업체 특별연장근로를 철회하지 않는 행위는 지엠자본과 뜻을 함께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허원 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세종물류센터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시작한 지 3주째임에도 쌓인 물량은 줄어들지 않았다”라며 “세종물류센터의 물량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창원센터 폐쇄로 상시 물량증가 상태가 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허원 지회장은 “노동부의 특별연

장근로 허용은 옳지 않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으로 주 최대노동시간 52시간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지회는 지난 7월 창원부품물류센터 폐쇄 후 창원센터가 담당하던 직영·협력서비스센터 25곳, 부품사 48곳, 바로코너 38곳을 대상으로 인터뷰 형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회 조사결과 창원부품물류센터 폐쇄 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64.86%로 문제가 없다고 답한 29.7%보다 월등히 높았다.

주요 문제점은 ‘배송지연’과 ‘포장불량’이었으며, 긴급부품 주문이 원활하지 않은 점, 오배송으로 인한 업무지연 등이 뒤따랐다. 한국지엠이 부품물류센터 통합 사유로 효율성을 내세웠지만, 공급지연, 결품 증가,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문 열다

9월 7일 개원 ... 30만 금속산별 발돋움, 활동가·간부 양성 터전

금속노조가 9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단양청소년수련원 개원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30만 금속산별로 발돋움하기 위한 활동가·간부 양성 교육연수원이자, 100만 민주노총이 함께 사용하는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노동연수원”이라고 설립 의의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개원식을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노조 중앙집행위원 등 적은 인원으로 소박하게 치렀다. 류한우 단양군수, 장영갑 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단양 관계자들과 단양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개원식에 참석해 전국금속노동조합 단양청소년수련원(이하 교육연수원)의 출발을 축하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개원사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단양이 중심에 있다. 공사 동안 물심양

면으로 챙겨준 류한우 단양군수를 비롯한 단양 관계자 여러분께 19만 금속노조 조합원 이름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인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코로나 19가 아니었으면 뜻깊은 이 자리에 마을 주민들까지 모여 축제의 자리로 만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감염병 상황이 나아지면 금속노조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 제 역할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개원식과 현판식 등 공식 행사 종료 후, 개원식 참가자들은 나경원 금속노조 교육실장 안내로 연수원 곳곳을 둘러봤다. 교육연수원은 대강당, 강의동과 숙소동으로 나뉜다.

최대 800명 수용 규모의 대강당이 연수원 어귀에 자리 잡고 있다. 대강당 오른편의 강의동은 100명 규모의 대강의실 1개, 50명 규모의 강의

실 2개, 30명 규모의 강의실 2개로 구성했다. 강의동 뒤편의 숙소동에 최대 200명이 숙박할 수 있다. 야외에는 풋살장과 농구장, 공연장이 있어 문화체육 활동을 할 수 있다.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건립은 2005년 금속 산별노조 출범 당시 제출한 ‘산별노조 발전전략’ 가운데 하나다.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 양성 ▲새로운 산별노조 교육체계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금속노조는 이를 위해 2006년 1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교육원 토대 마련을 위한 특수목적 기금 설치를 결의하고, 매년 조합비 1%를 적립했다.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이용안내와 예약현황 확인, 숙박·대관 예약신청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단양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metalunionedu.org)에서 할 수 있다.

